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185

JCCT 2023-7-22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 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 분석

Analysis on Peritext of the Picture-book 『The Legend of Pat-bing-su』

남아름*, 김상림**

A Reum Nam*, Sang Lim K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 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책의 서사를 인물, 배경, 플롯, 서술방법에 따라 분석 후, 남아름과 김상림이 제안한 그림책 페리텍스트 분석틀을 활용하여 서사적 의미를 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팥빙수의 전설』은 기본적 정보로서 제목, 작가명, 출판 정보를 표지 등을 제시하며, 물리적 요소로는 서사와 부합되는 흰색 무광의 장방형 종이를 양장 제본하여, 서사에 대한 선행 이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표지와 면지 및 표제지와 간기면에 담긴 그림텍스트와 글텍스트는 서사 구성요소를 함축적으로 제시하여 서사를 예측, 확장 또는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며, 플롯이나 장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추가 정보를 제시한다.

주요어 : 그림책, 페리텍스트, 팥빙수의 전설, 유아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narrative meaning of the peritext in the picture-book of 『The Legend of Pat-bing-su』. For the purpose, based on the narrative components proposed by Nam and Kim, the narrative meanings of the peritext were analyzed. As the results, the peritexts of 『The Legend of Red Pat-bing-su』 include basic information of the title, author's name, and publication information, and physical elements of hard cover binding with matte rectangular paper that matches the narrative, which support prior understanding of the narratives. In addition, the peritext components such as covers, endpapers, title page, and copyright page lead readers to predict or expand narratives components to predict, expand, or transform the narrative, and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plots or genres.

Key words: Picture-book, Peritexts, Legend of Pat-bing-su, Young Children

1. 서론

인간의 삶은 이야기의 연속이다. 작가는 삶의 경험을 구성하는 이야기의 사건들을 엮어 담론화함으로써 서사를 만들어낸다. 즉, 서사는 이야기를 원인관계에 의한 일련의 사건으로 구성한 것으로, 사건들을 엮어 만든 이야기의 열개라고 할 수 있다[1]. 유아는 그림책을 통해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한다. 서사화된

의미를 통해 타인의 생각과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하므로, 유아기에 있어 그림책 읽기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및 인지 발달을 위해 중요한 경험이다.

그림책은 글만으로 서사를 전달하는 전통적 의미의 책과 달리, 글과 그림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서사를 전달한다. 이 때 글과 그림은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가지나, 하나의 서사 안에 녹아들어 독립된 텍스트 이상으로 기능하며 유기적으로 총체적 의미를 전달한다.

*정회원, 인천대학교 대학원 유아·숲·자연교육학과 박사수료 (제1저자)

**정회원,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5월 14일, 수정완료일: 2023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1일

Received: May 14, 2023 / Revised: June 5, 2023

Accepted: July 1, 2023

**Corresponding Author: slkim@inu.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그림책의 총체적 의미는 서사 텍스트를 담고 있는 본문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페리텍스트(peritext)를 통해 유기적으로 전달된다. 페리텍스트는 책을 구성하는 요소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사와 관계되는 텍스트 곁에 있는 주변요소를 의미한다[2]. 글과 그림의 결합에 의해 한 권의 작품이 되는 그림책에 있어서 파라텍스트적 요소들의 조화로운 어울림은 작품성을 높여준다[3].

나아가 그림책 작가는 본문과 대별되는 또 하나의 표현 공간인 페리텍스트를 활용하여 서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남긴다. 예컨대, 독자는 페리텍스트에 담긴 정보를 통해 서사를 대하는 태도의 방향을 확인하기도 하고,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서사를 더 자세히 보기도 한다[4]. 이와 같이 페리텍스트가 가지는 그림책의 총체적 이해를 위한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글텍스트와 그림텍스트만큼 중요한 제 3의 텍스트로 간주되기도 한다[5]. 또한, 내러티브의 전반적 의미에 기여하는 페리텍스트의 가치에 주목하여, 책을 책답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도 여겨진다[6].

현대로 오면서 그림책에서의 페리텍스트의 기능과 역할은 점차 확장되었다. 작가와 편집자는 페리텍스트에 많은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하고 공들여 기획함으로써 그림책의 내용을 압축하여 전달하고자 시도한다[7]. 따라서 페리텍스트는 의미 없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며 서사 구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3, 8]. 이에 과거와 달리 작가가 의도한 그림책의 총체적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페리텍스트를 포함한 그림책 읽기가 요구된다 하겠다.

김정선은 그림책의 페리텍스트 요소가 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매체 역할을 한다고 제안했다[9].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확장된 역할과 특징은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분석한 일부 연구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신세니는 한글로 번역된 포스트모던 그림책 12권의 페리텍스트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여, 페리텍스트와 내용텍스트 간 조화로운 구성과 통일성이 다차원적 서사 구조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3]. 나아가 이명신은 에밀리 그래빗의 그림책 두 권을 분석한 결과, 페리텍스트와 본문텍스트 간 서사 층위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중적 서사 구조인 메탈렙시스를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특징으로 제안했다[10]. 이를 통해

현대사회의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서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페리텍스트가 가지는 서사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일부 선행연구는 그림책의 페리텍스트가 가지는 서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0년 나선희는 한국 그림책 23권을 대상으로 면지와 서사의 관련성을 분석했다[11]. 그 결과, 앞면지와 뒤면지가 서사의 구성요소인 배경과 인물 및 플롯과 연관됨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하게 2021년에 남아름과 김상림은 국내의 출판 그림책 9권을 분석하여 면지가 서사 구성요소와 다양하게 관련됨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12].

한편, 일부 선행연구는 그림책의 페리텍스트가 가지는 서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에 김정준과 신원애는 볼로냐라기치상을 수상한 국내 그림책 10권의 표지와 면지 그리고 부속물을 분석하고, 이들 페리텍스트가 내용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주제나 사건의 압축적 제시, 서사의 연장) 의미를 가진다고 제안했다[7]. 같은 해에 한아름은 해외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한국 그림책 49권의 페리텍스트에 나타난 서사적 정보(배경, 등장인물, 사건, 소재, 장르)를 양적으로 분석했다[13].

이상에서와 같이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페리텍스트 구성요소 중 면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다수의 그림책을 종합하여 주요 특징적 요소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페리텍스트가 가지는 서사적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할 가치가 있는 특정 그림책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특정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심층 분석에 대한 학문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는 2016년에 수행된 권윤지, 이조은, 이연선의 논문에 국한된다[14]. 권윤지 등은 페리텍스트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작품으로 2009년 출판된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파도야 놀자』를 선정했다. 연구자들은 『파도야 놀자』의 페리텍스트 요소를 표지/제목/작가명, 속표지, 면지, 판형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여기에 나타난 서사적 의미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페리텍스트가 텍스트 이상으로 그림책 이해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었다[8]. 권윤지 외의 연구물이 발간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나 다수의 그

림책이 출판되었음을 고려할 때, 문학적 가치가 있는 특정 그림책의 페리텍스트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지은의 그림책 『팔방수의 전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페리텍스트에 나타난 서사적 의미를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15]. 『팔방수의 전설』은 삼 년 이상 스테디셀러인 그림책을 제시한 이지은의 연구에 소개된 작품 중 가장 최근에 출간된 그림책이다[16]. 그림책의 글과 그림 작가인 이지은은 한국과 영국에서 디자인과 그림공부를 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종이 아빠(2014)』, 『할머니 엄마(2016)』, 『빨간 열매(2018)』, 『친구의 전설(2021)』 등이 있으며, 2021년 『이파라과 나무나무』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팔방수의 전설』은 옛이야기인 『팔죽 할멈과 호랑이』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토대로 각색한 페리디 장르에 해당하며, 작가와 작품의 우수성과 대중성을 고려할 때 페리텍스트의 심층분석을 위한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분석 대상 그림책 『팔방수의 전설』의 페리텍스트에 나타난 서사적 의미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서사를 고찰한 후 페리텍스트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서사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겠다. 이를 통해 현대적 그림책에 나타난 페리텍스트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아기 그림책 읽기에 활용될 수 있는 학문적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연구문제의 형태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그림책 『팔방수의 전설』 페리텍스트에 나타난 서사적 의미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그림책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팔방수의 전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팔방수의 전설』은 2019년 웅진주니어 출판사에서 출간한 그림책으로 글과 그림 작가는 모두 이지은이다.

2. 분석 기준 및 절차

그림책 『팔방수의 전설』 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

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그림책의 서사를 분석했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그림책의 서사 구성요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인물, 배경, 플롯, 서술방법이 포함된다[17]. 각 구성요소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은 서사 속에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의인화된 동물 또는 사물을 의미하는데, 캐릭터 설정과 행동적 특성을 통해 묘사된다. 둘째, ‘배경’은 서사가 일어나는 시공간적 흐름으로, 여기에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포함된다. 시간적 배경은 시대, 계절, 시간 등을 의미하며, 공간적 배경은 서사의 무대가 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셋째, ‘플롯’은 서사를 이루는 사건들이 시간이 흐르며 이어지거나 인과관계에 의해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서술방법’은 인물, 배경, 플롯을 활용하여 완성된 서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시점, 화자, 초점화가 포함된다. 시점은 서사를 보는 사람 즉, 누가 보는지 또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의미하고, 화자는 누가 말하는가를 뜻하며, 초점화는 서사에서 강조되어 집중적으로 봐야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서사를 분석한 후, 남아름과 김상림이 제안한 그림책 페리텍스트 분석틀을 활용하여 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를 분석했다[18]. 페리텍스트 분석틀은 네 가지의 범주를 포함한다(표 1).

표 1.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분석틀
 Table 1. Analyses framework of picturebook peritexts

범주	구성 요소
기본적 정보	제목, 작가명, 출판 정보, 수상 정보, 헌사/감사의 말, 추천사 등
물리적 요소	판형, 제본, 재질, 페이지 형태 등
위치적 요소	표지(앞표지, 뒤표지, 책등), 면지(앞면지, 뒤면지), 표제지, 간기면, 덧싸개 및 띠지 등
콘텐츠 요소	글, 그림,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등

첫째, ‘기본적 정보’에는 제목, 작가명, 출판 정보, 수상 정보, 헌사/감사의 말, 추천사 등이 포함된다. 둘째, ‘물리적 요소’에는 판형, 제본, 재질, 페이지 형태 등이 포함된다. 셋째, ‘위치적 요소’에는 표지(앞표지, 뒤표지, 책등), 면지(앞면지, 뒤면지), 표제지, 간기면, 덧싸개 및 띠지 등이 포함된다. 넷째, ‘콘텐츠 요소’에는 글, 그림,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등이 포함된다.

페리텍스트 분석 시, 각 페이지면 뿐만 아니라 좌우 페이지를 합친 펼침면을 분석단위로 사용했다. 그림책의 물리적인 특성상, 좌우 페이지를 합하여 단일 면으로 간주하고 그림텍스트와 글텍스트를 넣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 시 펼침면을 분석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분석한 결과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간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조율과정을 거쳤다.

III. 연구 결과

1. 『팔빙수의 전설』의 서사

1) 인물

『팔빙수의 전설』의 주요 인물은 할머니와 눈호랑이이다. 주인공 할머니는 강인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유머 있는 인물로 설정됐다. 또 다른 주인공인 눈호랑이는 고집이 세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위협을 가하는 인물로 설정됐다. 할머니는 장에 내다 팔 다양한 음식을 직접 농사를 짓는 부지런한 행동적 특성을 가지며, 눈호랑이는 할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기 위해 산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등 활동적인 행동적 특성을 보인다.

2) 배경

『팔빙수의 전설』의 시간적 배경은 특정되지 않은 먼 옛날이다. 계절은 여름이며, 아침에서 시작하여 석양이 질 때까지의 하루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시간성은 글과 그림을 통해 나타난다. 먼저, 글은 “옛날옛날 한 옛날에,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좋은 그런 날이 있어.”로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 서사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계절을 묘사한다. 그림을 통해서도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다. 그림은 글과 같이 명확한 단어나 문장으로 서술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 시간성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할머니가 수확한 작물의 그림을 통해 시간성이 드러난다. 딸기, 참외, 수박의 수확시기는 여름이며, 서사 초반의 아침배경과 마지막 장면의 석양을 통해 아침부터 석양이 지는 시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적 배경은 시간적 배경에 비해 단순하게 나타나는데, 눈호랑이와 할머니가 만나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 ‘산길’이 그 배경이다.

3) 플롯

『팔빙수의 전설』의 플롯을 도입-전개-절정-결말의 구조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한 마을에는 수박, 참외, 딸기 농사를 짓고, 단팥죽을 쑤어 장에 내다 파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 마을에는 따스한 날에 눈이 내리면 눈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던 따스한 어느 날, 할머니는 수박과 참외, 딸기, 단팥죽을 장에 내다 팔기 위해 산길을 따라 걸었다. 그 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눈호랑이가 나타나 할머니에게 “맛있는 거주면 안 잡아 먹지.” 라고 말한다. 할머니는 눈호랑이에게 딸기, 참외, 수박을 차례로 내어주지만 여전히 배가고픈 눈호랑이는 할머니에게 먹을 것을 더 요구한다. 눈호랑이는 할머니의 밭짐을 빼앗으려 하고, 할머니는 밭짐을 빼앗기지 않으려 서로 잡아당기다 그만 밭짐이 날아간다. 밭짐 속에 담겨있던 따뜻한 단팥죽이 눈호랑이 머리 위로 떨어졌고 눈호랑이는 단팥죽의 열기에 그만 녹아버린다. 녹은 눈호랑이와 호랑이가 먹었던 수박, 참외, 딸기가 모두 섞여 범벅이 되었는데 이 범벅이 바로 지금 우리가 먹는 팔빙수의 전설이다.

4) 서술방법

『팔빙수의 전설』의 시점은 글과 그림이 서로 상이하다.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그림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화자는 주인공 할머니이다. “얼른 모여봐. 지금부터 엄청 재미난 얘기를 해 줄 거여.”로 시작하는 글텍스트는 할머니가 사투리를 사용하여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초점화는 하나의 펼침면에 여러 개의 장면을 순차적으로 연속 배치하여 빠르고 역동적으로 서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하여 봐야한다. 예컨대, 눈호랑이가 할머니로부터 단팥죽을 빼앗는 장면이 담긴 펼침면의 경우, 그림 1에서와 같이



그림 1. 『팔빙수의 전설』 한 장면

Figure 1. A scene from 『The Legend of Pat-bing-su』

왼쪽 페이지에 네 칸의 그림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독자로 하여금 호랑이와 할머니의 갈등이 증폭되는 순간의 긴장감을 주고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페이지 전면을 활용하여 극적으로 몰입하게 한다.

2. 『팥빙수의 전설』 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

1) 기본적 정보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기본적 정보에는 제목, 작가명, 출판 정보, 수상 정보, 헌사/감사의 말, 추천사 등이 포함된다.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은 제목과 작가명 및 출판 정보를 표지 등에 제시하고 있으며, 수상 정보, 헌사/감사의 말, 추천사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물리적 요소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물리적 요소에는 판형, 제본, 재질, 페이지 형태 등이 포함된다.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의 판형은 장방형이며, 제본 유형은 양장이다. 전형적인 유아 대상 그림책의 물성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하얀 색의 무광이며 폭닥한 느낌의 재질은 시공간적인 배경인 눈 내리는 어느 날과 주인공인 눈호랑이의 이미지와 부합된다.

3) 위치적 요소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위치적 요소에는 표지, 면지, 표제지, 간기면, 덧싸개 및 띠지 등이 있다. 그림책 『팥빙수의 전설』의 표지(앞표지, 책등, 뒤표지), 면지(앞면지, 뒤면지), 표제지, 간기면에 나타난 콘텐츠 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표지’에는 하얀 바탕 위에 팥빙수 한 그릇의 커다란 그림텍스트와 함께 제목 및 작가명이 나타난다(그림 2).



그림 2. 표지(앞뒤표지와 책등)
 Figure 2. Covers (front cover, back cover, and spine)Figure 2. Covers (front cover, back cover, and spine)

그림 2에서와 같이 제목과 작가명은 예스러운 서체를 사용하여 음각 기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옛이야기라는 서사의 장르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앙에 제시된 그림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릇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나무들은 주요 서사의 공간적 배경인 산길을 의미한다. 빙수 그릇 상단의 갈색 팥 덩이를 배경으로 할머니를 들고 있는 눈호랑이는 서사의 구성요소인 인물의 설정과 행동적 특징을 보여주며, 하단의 흰 눈을 배경으로 한 참외, 수박, 딸기 그림은 주요한 플롯의 전개를 암시한다. 나아가 앞표지에 나타난 ‘팥빙수 한 그릇의 그림’은 서사의 주요 구성요소를 물리적으로 하나의 그릇에 담고 있는데, 이는 팥빙수라는 음식 한 그릇에 ‘본 그림책의 서사인 전설이 담겨져 있다’는 중의적 의미를 시각화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책등’에는 수박, 참외, 딸기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할머니의 그림이 있다. 이는 농사지은 먹거리를 내다 팔기 위해 장에 가는 할머니와 배고픈 눈호랑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플롯이 진행됨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1cm 남짓한 책등에 담긴 함축적 의미의 그림텍스트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도 작동할 수 있다.

셋째, ‘뒤표지’에는 눈호랑이가 빨간 두건을 쓰고 할머니로 변장한 그림과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글이 있다. 이는 서사와 달리 눈호랑이가 할머니로 변신한 모습으로 인물의 역할 전도를 내포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변형되거나 새롭게 전개되는 플롯을 상상해 보도록 이끌어준다.

나아가 뒤표지에 나타난 텍스트는 서사의 마지막 장면과 연관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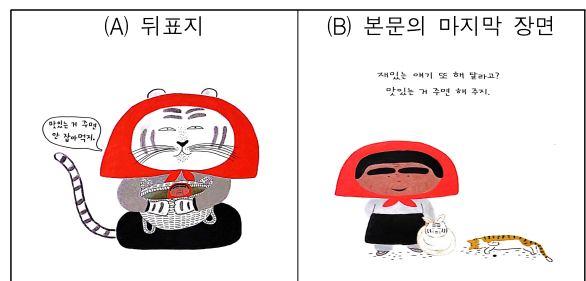


그림 3. 뒤표지와 본문 마지막 장면과의 연관성
 Figure 3. Relations between back cover and last scene

즉, 그림 3에서와 같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할머니는 보자기에 쌓인 눈호랑이를 손에 들고 “재밌는 얘기 또 해 달라고? 맛있는 거 주면 해 주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뒤표지에서 할머니가 담긴 바구니를 안고 있는 눈호랑이가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하고 동일한 말을 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뒤표지의 장면은 본문의 마지막 장면과 견주어지면서, 두 주인공인 할머니와 눈호랑이의 바뀐 모습을 보여주어 서사를 비틀어서 새로운 서사를 상상하도록 이끈다.

넷째, ‘앞면지’와 ‘뒤면지’ 각각에는 여섯 개의 작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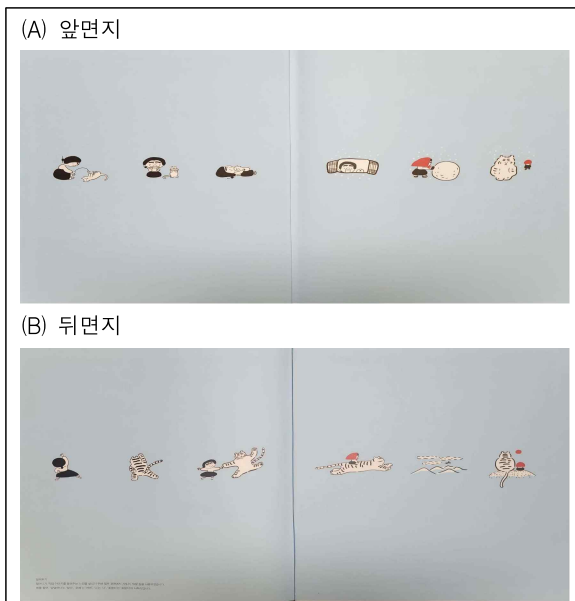


그림 4. 면지
Figure 4. Endpapers

그림 4에서와 같이 그림들의 내용은 펼침면을 사용하여 전개된다. 즉, 앞면지의 그림은 할머니가 눈호랑이를 만들어나가는 장면이며, 뒤면지의 그림은 할머니와 눈호랑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다. 이는 눈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다소 잔혹한 플롯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눈내리는 날 눈사람을 만들거나 함께 어울리는 장면을 통해 잔혹성을 약화시키고 즐거움으로 해학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뒤면지’에는 ‘일러두기’ 글텍스트가 있다. 일러두기의 내용은 ‘할머니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일부 표현에서 사투리, 입말 등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호랭이’로 사용했다는 설명을 포함한다. 이는 서사 속 인물인 할머니가 표준어 대신 사투리를 사용하는 근거를 알려준다. 또한, ‘전설’이라는 옛이야기 특유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있어 유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적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앞뒤면지’ 모두에는 펼침면을 단위로 글과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레이아웃은 본문에서 서사의 순간적인 흐름에 초점화하기 위한 화면 구성과 일관성을 갖는다. 즉, 앞뒤면지 각각에 제시한 여섯 개의 작은 그림들은 펼침면을 사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는 그림책 본문에서 주요하고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장면마다 펼침면을 사용하여 짧은 순간의 플롯 전개에 초점화를 시키는 방식과 동일한 구성이다(예: 그림 1 참조).

일곱째, ‘표제지’에는 눈호랑이가 팥빙수 재료 속에 숨어서 팔을 고르고 있는 할머니를 음흉하게 쳐다보는 그림텍스트가 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플롯을 상상하게 하여 서사를 확장시킨다. 본문 서사에서는 뜨끈한 팔을 뒤집어 쓴 눈호랑이가 열기에 녹아내려 할머니에게서 빼앗아 먹은 수박, 참외, 딸기와 함께 눈범벅이 되어 팥빙수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표제지에 나타난 눈호랑이의 모습은 팥빙수 사이에서 부활하여 할머니를 몰래 음흉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긴장감을 주고 새로운 플롯의 상상하고 확장하게 한다.

여덟째, ‘간기면’ 상단에는 ‘작가의 글’ 텍스트가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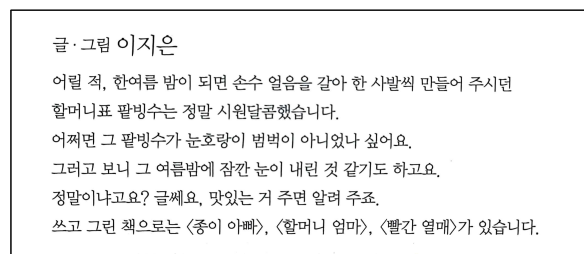


그림 5. 간기면
Figure 5. Copyright page

그림 5에서와 같이 작가는 작가의 글을 통해 플롯 창작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팥빙수의 전설』이 작가의 상상력과 경험이 투영되어 창작된 서사임을 보여준

다. 즉, 간기면에 담긴 작가의 글에는 어릴 적 한여름 밤 할머니가 손수 얼음을 갈아 만들어 주시던 팔빙수를 그리워하는 작가의 옛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한, 어릴 적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할머니표 팔빙수가 눈호랑이 범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서사가 창작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팔빙수의 전설』 페리텍스트에 나타난 서사적 요소를 심층 분석했다.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팔빙수의 전설』은 기본적인 정보 중 제목, 작가명, 출판 정보를 표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물리적 요소로는 흰색 무광 재질의 장방형 종이를 양장 제본한 특성을 가진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그림책에서와 같이, 서사의 주요 요소와 부합된다[14]. 예컨대, 『팔빙수의 전설』에 사용된 종이가 가진 하얗고 폭다한 느낌의 무광 재질은 눈 내리는 날이라는 서사의 시간적 배경을 반영하는데, 이는 『과도야 놀자』에 사용된 회색빛의 거칠한 감촉을 담은 종이 재질이 모래사장이라는 서사의 공간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페리텍스트의 위치적 요소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표지(앞뒤표지, 책등), 면지(앞면지, 뒤면지), 기타(표제지, 간기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팔빙수의 전설』 ‘앞표지’의 하얀 바탕 위의 그려진 팔빙수 한 그릇의 그림텍스트는 인물과 배경 및 플롯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독자로 하여금 서사를 예측하게 한다. 이같은 그림책 앞표지의 서사적 기능은 주목성과 정보성에 초점을 두어 독자의 첫 인상을 끌도록 구성되는 일반적인 책 표지의 역할과 다소 상이한 것으로, 그림책 표지의 그림텍스트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예컨대, 존 버닝햄의 『지각대장 존』의 앞표지에는 덩치가 아주 작은 학생을 덩치 큰 선생님이 뽐족하고 긴 이를 드러내면서 바라보는 그림텍스트가 나타나는데, 이는 권위적인 교사와 대립되는 소년의 이야기로 서사가 진행될 것을 예측하게 한다[9].

앞표지와 유사하게 ‘책등’의 수박, 참외, 딸기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할머니의 그림텍스트는 서사의 갈등으로 인해 플롯이 진행됨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어, 독자

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이수지의 그림책 『과도야 놀자』의 책등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14]. 즉, 『과도야 놀자』의 책등에는 갈매기 그림텍스트가 나타나는데, 갈매기는 주인공 소녀와 함께 서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등장하여 사건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뒤표지’의 눈호랑이가 빨간 두건을 쓰고 할머니로 변장한 그림텍스트와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라는 글텍스트는 본 서사와 달리 인물의 역할이 전도된 것으로, 플롯을 변형시켜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서사를 상상하게 하는 역할을 가진다. 이는 전형적인 그림책과 상이한 부분으로, 부모나 교사가 이 점을 인지한다면 유아와의 그림책 읽기 활동에 교육적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팔빙수의 전설』을 읽은 후에 서사를 다양하게 바꾸어 상상해 보는 활동으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팔빙수의 전설』 면지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앞면지’와 ‘뒤면지’의 각기 다른 할머니와 눈호랑이 그림텍스트는 서사의 플롯과는 다른 장면을 담음으로써, 서사의 잔혹성을 약화시키고 해학성을 추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그림책 면지가 서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작가가 의도적으로 서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뒤면지’의 ‘일러두기’ 글텍스트는 할머니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일부 표현에서 사투리, 입말 등을 사용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독특한 용어 표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지원하는 보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앞뒤면지’에서 펼침면을 단위로 그림텍스트를 제시하는 구성은 펼침면 구조를 다수 사용한 본문의 구성과 일관성을 갖는다. 이는 앞뒤면지에 나타난 펼침면 단위의 구조가 본문 전반에 나타난 구성과 일관성을 갖는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예컨대, 이수지의 『동물원』은 앞뒤면지에서 펼침면 구성을 통해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흑백톤과 환상세계를 의미하는 컬러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문의 구성과 동일하다[19].

셋째, 『팔빙수의 전설』 ‘표제지’의 그림텍스트는 본문에 나타난 서사 이후의 장면을 담아, 독자로 하여

금 새로운 플롯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서사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페리텍스트 중 속표지로도 불리우는 표제지의 특성을 집중 고찰한 이서정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20]. 즉, 표제지는 일반적으로 제목과 등장인물의 그림을 간단히 소개하는 지면으로 간주되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표제지가 본문의 마지막 장면과 연결되어 마치 에필로그나 프롤로그처럼 서사를 확장하는 역할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간기면’에 담긴 ‘작가의 글’ 텍스트는 『팔빙수의 전설』이 작가의 유년기 경험과 상상력이 더해져 창작된 서사임을 보여준다. 서론에 소개한 바와 같이 본 그림책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설인 『팔죽할멈과 호랑이』 및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서사를 패러디하여 담고 있는데, 전설 속 서사를 재구성하는 구심점이 작가의 유년기 경험과 상상력임을 제시하여, 페리텍스트가 서사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와 같이 그림책 『팔빙수의 전설』 페리텍스트에 나타난 서사적 의미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팔빙수의 전설』을 읽어줄 때, 페리텍스트 탐색이 서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 및 확장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팔빙수의 전설』을 읽기 전에 페리텍스트 탐색을 통해 서사의 구성요소인 인물, 배경, 플롯, 서술방법에 대해 예측해 보도록 상호작용 할 수 있으며, 읽은 후 또는 반복적 읽기 시 플롯을 확장시키거나 변형해 보는 기회를 통해 플롯과 장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이지은 작가의 그림책 『팔빙수의 전설』을 선정하여, 페리텍스트에 나타난 서사적 의미를 심층 분석했다. 이에 유아교육 측면에서 가치 있는 다양한 그림책을 선정하여 심화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기를 제안한다. 둘째, 유아교육 현장에서 그림책 페리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페리텍스트 활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적용하여 유아 반응을 고찰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이지은 작가의 그림책 『팔빙수의 전설』에 나타난 서사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우리는 그림책 『팔빙수의 전설』의 페리텍스트에 다양한 서사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주장한다. 해당 그림책은 기본적인 정보로 제목, 작가명, 출판 정보를 표지 등에 제시하고, 물리적 요소로 서사와 부합되는 흰색 무광의 장방형 종이를 양장제본함으로써 서사에 대한 선행 이해를 지원한다. 표지와 면지 및 표제지와 간기면에 담긴 그림텍스트와 글텍스트는 서사 구성요소를 함축적으로 제시하여 서사를 예측, 확장 또는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며, 플롯이나 장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추가 정보를 제시한다. 이는 페리텍스트가 글텍스트와 그림텍스트만큼 중요한 제 3의 텍스트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로,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페리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References

- [1] S. N. Chang, “Erzähltheorie und Narratologie als theoretische Möglichkeit der Literaturwissenschaft,” *Brecht und die Padagogik (BP)*, Vol. 36, pp. 221-242, 2017. UCI: G704-000760.2017.36.002
- [2] Genette, G, “Paratext: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J. E. Lewin,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3] Shin S. N., Study on The Features and Functions of the Paratext in Postmodern Picturebooks: Focused on the Process of Young Children’s Reading Postmodern Picturebooks,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South Korea, 2011.
- [4] Nodelman. P, “Words about Pictures: The Narrative Art of Children’s Picture books,” Gyeonggi: Borim Press, 2011.
- [5] J. S. Kim, “Paratext in Picturebook: Size & Shape, Paper, Page, Book Binding (2),”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TPM)*, Vol. 18, No. 2, pp. 65-70, 2015.
- [6] Nikolajeva, M., and Scott, C, “How Picturebooks Work,” South Korea, Seoul: Marubal, 2011.
- [7] J. J. Kim, and W. A. Shin, “The Meanings of the ‘Paratexts’ in Children’s Picture Books Focusing on the Korean Authors’ Books That Won the Bologna Ragazzi Awards,” *The Korean Society for*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KSECEC)*, Vol. 11, No. 3, pp. 179-202, 2016. DOI: 10.16978/ece.c.2016.11.3.008
- [8] M. H. Lee, and J. J. Kim, "The Change Trend of Peritext Exploration and Reading Activity of Picturebooks Affecting 3 Years-old Young Children's Reading Interest and Verbal Expression," *The Society for Constructiv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SCECE)*, Vol. 4, No. 1, pp. 45-66, 2017.
- [9] Kim, J. S., Signification of Picturebook: Focusing on Dual Narration System and Medium of Book,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3.
- [10] M. S. Lee, "The Characteristics of Emily Gravett's Postmodern Picturebooks: On the Basis of Metalepsi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JCLE)*, Vol. 21, No. 2, pp. 111-135. 2020. DOI: 10.22154/JCLE.21.2.5
- [11] S. H. R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dpapers and the Narrative in Korean Picture books," *Folktale and Translation (FT)*, Vol. 19, pp. 93-118, 2010.
- [12] A. R. Nam, and S. L. Kim, "The Narrative Relevance of Picture Book Endpapers: With a Focus on Narrative Compon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KJHE)*, Vol. 30, No. 4, pp. 553-564, 2021. DOI: 10.5934/kjhe.2021.30.4.553
- [13] Han. A. R., A Study on Peritext of Foreign Children's Literature Award-winning Korean Created Picturebooks, Master's Thesis, Sungkyun kwan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7.
- [14] Y. J. Kwon, J. E. Lee, and Y. S. Lee, "A Study on the Meanings of Paratexts in the Picturebook 『WAVE』,"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JCLE)*, Vol. 17, No. 4, pp. 1-28, 2016.
- [15] J. E. Lee. "The Legend of Pat-bing-su," Gyeonggi: Woongjin Thinkbic, South Korea, 2019.
- [16] J. E. Lee, "An Analysis of Literacy and Artistic Characteristics of Steady Sellers Picture Books," *Journal of Children's Media and Education (JCME)*, Vol. 21, No. 4, pp. 297-323, 2022. DOI : 10.21183/kjem.2022.12.21.4.297
- [17] Joung. H. J., An Analysis Study on Narrative Devices of Picturebooks, Doctoral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Incheon, South Korea, 2018.
- [18] A. R. Nam, and S. L. Kim, "Components for Picturebook Peritext Analysi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2, pp. 181-188, 2023.
- [19] J. S. Kim, "Paratext in Picturebook: Title Page, Inside Title Page, Endpaper (1),"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TPM)*, Vol. 16, No. 4, pp. 29-36, 2013.
- [20] S. J. Lee,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ide Title Page in the Picture Books - Focusing on Korean picture books -,"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JCME)*, Vol. 16, No. 4, pp. 211-227, 2017. DOI : 10.21183/kjem.2017.12.16.4.211